

달아오른 대권 경쟁... “現 지지율 의미없다”

대선 1년 6개월 앞...반기문·문재인 1~2위 김대중·노무현·이명박 뒤집기로 대통령 당선

19대 대선이 20일로 꼭 1년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 지형 변화 조짐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 출마 의지를 우회적으로 피력했으며 야권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손학규 민주당 전 대표까지 오는 9월께 정계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차기 대권을 향한 경쟁이 서서히 달아오를 분위기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들에서는 반 사무총장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가 1,2위를 다투는 가운데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뒤를 따르는 흐름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현 지지도 판세로 향후 1년 6개월 후의 결과를 예측하기는 이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남은 기간 동안 후보들의 지지도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역대 대선 결과를 살펴봐도 선거 1년 반 전에 선두를 달리던 대권주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경우는 드물었다. 오히려 대다수 대통령들은 대선 1년반 전만 해도 지지율 측면에서 2등 이하에 머물렀으나 최종 선거에서는 선두를 쥐고 역전극을 펼쳤다.

제15대 대선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20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15대 대선으로부터 약 1년 8개월 전 시점인 1996년 4월만 해도 여당인 당시 신한국당 이회창 후보가 35% 안팎의 지지율로 선두였고 국민의당 김대중 후보는 2위를 달리긴 했지만 지지율이 1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어서 1위와는 격차가 컸다. 그러나 이후 이회창 후보는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 이인제 후보의 당내 경선 불복과 탈당 등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지만, 김대중 후보는 지지율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상황을 역전시켰

다. 비록 대선 막판에 신한국당 감삼재 의원이 비자금 사건을 폭로하면서 위기를 맞긴 했으나 검찰은 비자금 수사 착수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고, 김대중 후보가 결국 대권을 잡았다.

제16대 대선 역시 후보들의 지지율은 대선까지 1년 반 동안 요동쳤다. 대선으로부터 약 1년 반 전인 2001년 당시 새천년민주당 상임고문이었던 노무현 후보를 한나

라당에서는 눈여겨 보지 않았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 추세를 보이자 젊은 층의 호응을 받고 있다는 점과 영남에서 지지표가 잡힐 가능성이 우려하긴 했으나 전국적인 지지도가 낮아 대선후보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무현 후보는 이듬해 국민경선에서 승리하며 무서운 속도로 지지도를 끌어올렸고 경선이 끝난 4월말에는 지지율이 60%대를 기록하기까지 했다. 물론 이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위기를 맞기도했지만 결국은 대선에서 승리했다.

제17대 대선의 주인공인 이명박 전 대

통령 역시 선거 1년 반 전인 2006년 6월에는 지지도 3등에 머물렀었다. 당시에는 박근혜 당시 의원과 고건 전 총리가 1위 자리를 놓고 엮여있던 형국이었다. 그러나 이후 유력한 대권후보로 거론되던 고건 전 총리가 소극적 행보를 보이며 지지율이 하락한 반면, 이명박 후보는 서울시장 퇴임 후 ‘한반도 대운하 건설’ 프로젝트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밝히며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대권을 쥘거위었다.

다만, 제18대 대선의 경우 선거 1년 반 전 시점에 선두를 달리던 박근혜 당시 후보는 야권의 거센 도전장을 물리치고 당선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야 3당 “보훈처장 물러나야”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3당이 보훈처장 해임추진 결의안 공조를 하기로 했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 3당 “조선업 부실 책임 묻겠다”

청문회 공조 추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은 20일 조선·해양을 포함한 부실기업 지원 진상 파악을 위해 ‘청와대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더민주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정의당 이정미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 같이 합의했다.

김 원내 수석부대표는 “서별관 회의 뿐만 아니라 조선·해양 구조조정 전반에 대한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특히 조선·해양 구조조정과 관련한 산업은행의 책임문제가 정부위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회동에서는 기존에 합의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국회 특위를 구성해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청와대 서별관 회의’ 청문회 추진에 따라 기존에 합의했던 ▲어버이연합 지원 의혹 ▲법조비리 사건 ▲백남기 사건 진상규명 ▲가습기 살균제 등에 대한 청문회와 함께 야 3당이 공조기로 한 청문회는 모두 5개로 늘어났다.

아울러 3당 원내 수석부대표는 국정 교과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조기로 합의하고,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특별법에 대한 공조 의지도 재확인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누리 불안한 정상화

권성동 사무총장 경질 놓고 친박-비박 충돌

탈당파의 복당 승인 이후 집기해온 새누리당 김희옥 혁신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당무에 복귀했지만 당내 갈등은 여전히 상황이다.

김 위원장이 전날 당무 복귀를 선언하면서 혁신비대위의 당연직 위원인 권 사무총장의 교체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탈당파 복당 결정에서 권 사무총장이 표결을 밀어붙인 게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질을 놓고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가 또다시 충돌했다. 우선, 권 사무총장과 비박계는 경질 방침에 강력 반발했다. 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김 위원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사퇴 권고는 합리적인 이유도, 명분도, 원칙도 없는 처사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당헌·당규상 사무총장의 해임은

혁신비대위의 의결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고 반박했다.

김영우 혁신비대위원장도 오전 비대위 전체 회의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라고 하자 발언권을 요청하며 경질의 부당성에 대해 항변했다.

김 위원장은 “만약 권 사무총장 경질 방침이 혁신비대위에서 (승인)한 복당 문제와 연계된 것이라면 혁신비대위의 자기 부정이자 자기 모순”이라면서 “혁신과 통합에도 결코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 친박계 의원 “김 위원장을 보좌해야 할 사무총장이 김 위원장의 뜻과 반대 표결을 강행하는 역할을 맡았다”면서 “김 위원장이 ‘당에 신뢰와 기강이 없다’고 한 것은 바로 권 사무총장을 두고 한 얘기”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손학규, 정계 복귀 카운트다운

강진에 집거중인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9월 현실 정치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손 전 대표의 정치 무대 복귀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대선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손 전 대표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동아시아미래재단 관계자는 “손 전 대표가 오는 9월 추석을 전후해 강진에서의 집거를 끝내고 현실 정치에 복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복귀 시점이 9월 이전

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손 전 대표의 핵심 측근도 “아직 최종 시기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하산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호남을 비롯, 각계각층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압박이 강하다”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정치 복귀에 앞서 2년 동안의 강진 집거 생활과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구상을 담은 자서전을 출간할 예정이며 이미 출판사와의 계약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측근 “9월 이전 하산 할수도”...자서전 출간 23일 23문화재단 웹 콘텐츠 축제 참석 ‘주목’

나 국민의당 등 기존의 정당에 합류하기 보다는 독자 세력화를 통해 새로운 판을 짜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대표와 가까운 모 단체장은 “손 전 대표가 9월 중에 정치에 복귀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정당이 합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대표는 오는 23일 광주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웹 콘텐츠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어서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인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손 전 대표는 지난 13일 광주 재야인사들의 정계복귀 요청에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지난 4일에는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목포에서 막걸리 회동을 가진 바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대선은 야권에 유리한 국면이지만 아직도 유동성이 크다”며 “손 전 대표가 주자로 나서든지 킹 메이커 역할을 하든지 간에 그의 역할은 대선 판도를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민의당 지역의원 7명 상임위 간사 선임

법사 이용주·교문 송기석·농해수 황주홍·산자 손금주

국토 윤영일·미방 김경진·안행 권은희...지역 현안 해결 기대

광주·전남지역 국민의당 의원들이 대거 국회 상임위 간사를 맡으면서 지역 현안 해결에 상당한 역할이 기대된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사이에서 제3당 간사로서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한다던 정치적 힘이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까지 확정된 결과를 보면 법사위 이용주, 교문위 송기석, 농해수위 황주홍, 산자위 손금주, 국토위 윤영일, 미

방위 김경진 의원 등이 해당 상임위 제3당 간사로 선임됐다.

안행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임할 예정이며 권은희 의원이 국민의당 몫 간사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천정배 의원과 김동철 의원은 서로 상임위를 바꿨다. 이에 따라, 김동철 의원은 국방위에서, 천정배 의원은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